

부모 재력 따른 학력 격차 심화



▲ 학교 중인 서울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 사진=shutterstock

한국에서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도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성식 서울교육대학교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모의 배경이 학력 격차에 미치는 영향과 해소방안' 토론회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학력격차가 최근으로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조사·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20년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분야 양극화 지수를 산출한 결과 고등학교 2학년생의 학업성취역량 불균등배분지수는 177.7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2010년을 100으로 놓고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와 소득이 높은 5분위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따라서 2020년 지수가 177.7이란 것은 지난 10년간 소득수준에 따른 자녀 학업성취역량 격차가 매우 커졌다는 의미다. 가구 소득에 따른 학업 성취도 차이는 초등학교 시기에도 나타나지만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더욱 뚜렷해졌다.

김 교수는 부모의 경제력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사교육을 통해 추가 교육·학습 기회를 주고, 부모 자신의 교육 경험과 성취라는 문화자본으로 자녀의 학습 태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학교의 교육 기회와 자원 할당에 부모 배경이 개입될 수도도록 하는 학교 제도와 교육과정 등에 대한 검토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기부문화 119개국 중 88위

한국의 기부문화가 세계 최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기부문화 수준을 나타내는 '세계기부지수'에서 한국은 지난해 119개국 중 88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코로나가 정점이었던 2021년에는 110위로 사실상 꼴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부선진국인 미국, 호주, 영국은 물론 중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은 지난 2011년 57위에서 2022년 88위로 대폭 하락한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140위에서 49위로 급격히 상승했다.

기부 참여율과 기부 의향도 지난 10년간 하락세를 보였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 13세 이상 국민의 기부 참여율은 2011년 36.4%에서 2021년 21.6%



▲ 부산 부전동에 설치된 한 기부단체의 기부 실적 전광판, 사진=shutterstock

로, 기부 의향은 같은 기간 45.8%에서 37.2%로 감소했다.

민간기부는 규모 면에서도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GDP 대비 민간기부 비중은 2011년 0.79%에서 2021년 0.75%로 0.04%p 감소했다.

민간기부 금액 자체는 같은 기간 11조원에서 15조6천억원으로 41.0% 늘어났으나, 명목 GDP가 1천389조원에서 2천72조원으로 49.2% 증가해 민간기부 금액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보고서는 민간기부 활성화 방안으로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공익법인 규제 개선 ●생활 속 기부문화 확산 등 3가지를 꼽았다.

이수원 대한상의 경제정책실 팀장은 "민간기부 활성화를 위해 규제는 풀고 인센티브는 대폭 늘리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 자영업자 비중 14년 만에 최고

지난해 자영업자 중 여성 비중이 30% 선에 육박하며 14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산일보'는 통계청을 인용해 지난해 자영업자 563만 2,000명 가운데 여성은 165만 9,000명으로 전체의 29.5%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이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29.7%) 이후 14년 만의 최고치다.

지난해 자영업자에 무급가족종사자를 더한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역시 여성 비중이 29.5%로 2008년(29.7%)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았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임금을 받지 않고 자영업자의 사업체 등에서 일하는 가족·친척을 말한다.

여성 자영업자 비중은 여성 임금근로자 비중보다

낮았다. 지난해 임금근로자 2,150만 2,000명 중 여성은 969만 4,000명으로 전체의 45.1%를 차지했다. 이는 여성 자영업자 비중보다 15.6%p 높은 것이다.

여성 자영업자 수는 1963년 58만 4,000명에서 지난해 165만 9,000명으로 2.8배 늘었지만 같은 기간 여성 임금근로자는 57만 4,000명에서 969만 4,000명으로 16.9배 급증했다. 59년 전인 1963년에는 여성 자영업자가 여성 임금근로자보다 1만 명 많았지만 지난해에는 803만 5,000명이나 적었다.

지난해 여성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27만 2,000명(76.7%),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38만 7,000명(23.3%)이었다. 지난해 여성 임금근로자는 969만 4,000명(상용근로자 652만 3,000명, 임시근로자 284만 8,000명, 일용근로자 32만 3,00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통증 전문
치료 병원

오렌지[백] 한방·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30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료해 드립니다.
침, 부항,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서울/세종/대한)
웰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 Care 1st
Clever Care, Kaiser
Humana, Anthem
AARP, Brand new,
Central Health

각종 보험

오바마 케어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
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

교통사고

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

무료 상담!
전화주세요!

진료 내용

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

진료 시간 월~금 9am~6pm/ 토 9am~12pm
점심시간 12pm~1pm/ 목 closed

예약/상담 714.530.7001

9681 Garden Grove Bl., Suite 101
Garden Grove, CA 92844(모란각 식당 옆)



Dr. 백사론
한의원,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의대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